

2023-12-26 (2023-47호)

12월 26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위험자산 랠리 강도와 연말 리밸런싱 주목

서울, 12월26일 (로이터) -

2023년 마지막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증시 움직임과 연말 수급에 주로 영향받으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10원이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를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다. 위험자산과 약달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달러/원 상단 저항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뉴욕 증시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를 적극 반영하며 랠리를 이어온 데다 달러도 이와 함께 약세 보폭을 넓혀온 터라 연말 포지션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반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역내 연말 수급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연말이라 네고가 쏟아지기보다는 양방향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높지만, 연말이라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 환율은 그때 그때 실수급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겠다.

주목할 만한 대내외 지표로는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PMI, 한국 11월 산업활동동향(12/28), 12월 소비자물가(12/29), 12월 수출입동향 등이 예정돼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위안/원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및 올해 3분기중 외환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을 발표한다.

(박예나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26일(화)

-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 (12:00)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12:00)
- ⊙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17:00)
- ⊙ 금융감독원: 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12월27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 (06:00)
- ⊙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12:00)
- ⊙ 통계청: 2023년 10월 인구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15:00)
- ⊙ 한국은행: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 (16:00)

12월28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통계청: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11:00)
- ⊙ 기획재정부: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17:30)

12월29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06:00)
- ⊙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국제수입 현황 (11:30)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한국은행: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2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26일	08:30	일본	실업률	11월		2.5%
12월26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1월		-0.19
12월26일	23: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10월		0.6%
12월26일	23: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10월		0.7%
12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1월		-7.8%
12월28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11월		1.3%
12월28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1월		4.2%
12월28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18일주간		205k
12월28일	22: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11월		-0.4%
12월28일	22:30	미국	소매재고 자동차 제외 잠정치	11월		-0.9%
12월29일	00:00	미국	잠정주택판매	11월	0.5%	-1.5%
12월29일	23:45	미국	시카고 PMI	12월	51.0	55.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26일 (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2월 서비스업 기업전망 서베이 (오후 10시30분)
- ⊙ 휴장국가: 캐나다, 독일, 호주, 홍콩 등

12월27일 (수)

- ⊙ 일본은행 12월18-19일 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FACTBOX)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2월20일 (로이터) -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여러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은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 목록이다.

#### ◆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이고 자금을 모금하여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서 61%의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는 4건의 기소에 대해 재선에 도전하는 자신의 행보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정적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취임 첫날'을 제외하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연방 공무원 조직을 충성파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량 추방과 선천적 시민권 폐지와 같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른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또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중국과의 무역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 ◆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이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헤일리(51세)는 81세의 바이든과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과 인도 이민자의 딸이라는 배경을 강조해왔다.

헤일리는 공화당 내에서 성별과 인종 문제를 다른 후보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확고한 보수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고하게 옹호하는 인물로 자신을 내세웠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12%의 지지를 얻고 있다. 주 단위 여론조사에서 헤일리는 일반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뉴햄프셔에서 라이벌인 론 디샌티스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 ◆ 론 디샌티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 주지사는 낙태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로이터/입소스 12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1%로 트럼프에 50%포인트 뒤처져 있다.

올해 45세의 디샌티스는 직원을 해고하고 선거 캠페인을 여러 차례 재정비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그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의 선거 캠프는 내년 1월에 당의 첫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에서 트럼프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11월6일 아이오와주의 인기 주지사 킴 레이놀즈가 그를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최근 주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 ◆ 비벡 라마스와미

전직 생명공학 투자자이자 경영자였던 라마스와미(38세)는 기업들이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상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이 정치적 아웃사이더는 트럼프의 잠재적 대안으로 민중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로이터/입소스 설문 조사에서 7%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치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후보자 토론회에서 불쾌한 구두 공격으로 라이벌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공격이 내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당선되면 트럼프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 크리스 크리스티

올해 61세인 크리스티는 트럼프의 2020년 선거 캠페인에서 조언을 제공했지만, 2021년 1월6일 공격 이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트럼프가 점점 더 많은 형사 고발에 직면하면서 구두 공격을 강화했다.

전 뉴저지 주지사이자 연방 검사였던 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으며, 트럼프를 달래기보다는 그의 행동에 대해 직접 맞설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공화당원 중 한 명으로 자신을 내세웠다.

크리스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 ◆ 아사 허친슨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4월 트럼프가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73세인 허친슨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보수 성향이 강한 아칸소 주를 이끌었던 자신의 경험을 공화당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증거로 내세웠다.

허친슨은 첫 번째 공화당 토론회에만 참가했으며 로이터/입소스 12월 여론조사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 조 바이든

이미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인 81세의 바이든은 나이와 낮은 지지율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4년 더 재임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측근들은 그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바이든은 출마를 발표하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선언하고,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한 치명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시 그의 러닝메이트다.

경제는 그의 재선 캠페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예상했던 경기침체를 피해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2022년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품과 가스 비용이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정부들의 대응을 주도하며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도록 설득했다. 이제 그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추가 자금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 세력과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지만,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하는 당내 일부의 요구에 또한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산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지출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유권자들로부터 후자에 대한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다.

바이든의 이민 정책 처리는 그의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 마리안 윌리엄슨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리안 윌리엄슨(71세)은 "정의와 사랑"을 내세우며 백악관 입성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윌리엄슨은 2020년 대선 예비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다. 그는 지난 3월23일에 이번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 ◆ 딘 필립스

미네소타 출신의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하원의원 딘 필립스는 지난 10월에 바이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54세의 백만장자 사업가이자 젤라토 회사 공동 창업자인 그는 온라인에 올린 1분짜리 동영상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우리에게는 몇 가지 도전이 있다...우리는 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국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69세)는 처음에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바이든에게 도전할 준비를 하다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케네디는 12월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의 지지표를 더 끌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는 1968년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의 아들이다.

#### ◆ 코넬 웨스트

정치 활동가이자 철학자, 학자인 그는 지난 6월에 진보적이고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3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0세인 웨스트는 처음에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10월에는 사람들이 "당파적 정치보다 좋은 정책을 원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빈곤 퇴치와 주거 보장을 약속했다.

#### ◆ 질 스타인

의사인 질 스타인은 11월9일 녹색당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일하는 사람, 청소년, 기후를 위한 약속을 몇 번이고 배신했고 공화당은 애초에 그런 약속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올해 73세인 스타인은 2016년 트럼프의 깜짝 승리 이후 재검표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그의 주장으로 위스콘신 주에서 단 한 건의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트럼프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ECB, 3월 이전 피벗 예상 안 해... 6월 이전 인하 어려울 듯 - 소식통들

프랑크푸르트, 12월18일 (로이터)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입안자들은 고금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년 3월 회의 전까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6월 이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7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ECB는 지난주 금리를 사상 최고치로 유지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베팅에 반해 고금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소식통들은 ECB가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도비시한 전환을 고려하기에 앞서 아무리 빨라도 3월7일 회의까지는 지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요한 임금 데이터가 대부분 발표될 6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 두 달이 늦은 것으로, 정책이사회의 견해와 시장 시각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같은 차이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최근의 현저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부분의 ECB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계속 낮아질 경우 6월 이전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은 ECB가 트레이더들의 견해에 더 강력하게 반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CB의 긴축 노력이 시장에 의해 상쇄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CB 대변인은 이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4일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정책 입안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다.

15일 ECB 이사들의 공개 발언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고, 로버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다음 조치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분간 금리를 "정점"에 두고 "전망을 즐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시장은 3월에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25bp 인하될 확률을 50%로 보고 있으며, 이후 12월까지 매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ECB의 예금금리는 현재 4.0%에서 내년 말 2.5%로 낮아지게 된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외시협, 시장질서 확립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설치... 지방은행·증권사 포함

서울, 12월21일 (로이터) -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시협은 21일 총회에서 외시협 회칙을 개정해 이상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자율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반기 1회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해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시장 교란행위 기준은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당국은 거래질서를 감독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더해 본점 권역별로 거래량 상위 1개 외은지점, 지방은행과 증권사의 거래량 상위 1개사, 현물환 중개 인가기관 이외 중개사 중 외환스왑거래 중개점유율 8% 이상 기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이상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현물환중개사 앞 시장질서 교란행위 모니터링 화면 개발을 통해 일별로 이상거래 및 호가주문·취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외환당국, 시범운영 2월부터 총 12회 걸쳐 실시... 현물환 2월·FX스왑은 4월부터

서울, 12월21일 (로이터) -

외환당국은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실거래를 실시하는데 이어 2월부터는 익일 2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사전 협의된 거래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1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총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물환은 2월, FX스왑은 4월부터 실거래를 테스트할 예정으로, RFI 신용공여 약정체결 대상 기관 중 연장시간대 야간 데스크를 운영하는 국내 기관은 의무 참여라고 밝혔다.

테스트 직전 월까지 사전계획서 제출 기관에 한정해 사전 협의된 거래만 테스트를 허용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런던 시간대와 자정부터 익일 2시까지 최소 두 구간 시간대에서 월단위 모든 의무 거래상대방과 실거래를 테스트해야한다.

한편, 거래방식은 API 전용선, 인터넷, 보이스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당국, 2024년 선도은행 7개 이내 선정...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

서울, 12월21일 (로이터) -

외환당국은 2024년 선도은행을 7개 이내로 선정해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2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실시 계획 등에 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도은행 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2023년 선정된 선도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기관이다.

2024년 선도은행 선정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종전 기준을 따르지만, 7월부터 11월까지의 기본요건에서 현물환·스왑 거래점유율을 각각 2.0% 이상(종전 2.5%)으로 변경하고, 현물환 거래실적 60%(양방향 거래실적 15%, 호가 거래실적 45%), 스왑 거래실적 40%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깊이·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